

# “우리는 식구”...한중우호친선의 밤 성료

한국 지역문화연구회 주최·주관  
가든음악회·민간정원 2호 탐방 등  
구정지 총영사 “韓 좋은 관계 노력”  
문병채 회장 “문화·예술 발굴·공유”



지난 9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하산동 카페 더비에서 한국 지역문화연구회가 주최한 ‘한중 우호 친선의 밤’ 가든 음악회가 주광주중국총영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은 문병채 한국 지역문화연구회 회장이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 /서형우기자

‘한중 우호 친선의 밤 가든 음악회’가 지난 9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하산동 카페 더비에서 경제계·학계·문화계 인사와 주광주 중국 총영사 및 영사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 지역문화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포크 음악 밴드 ‘여우비’의 무대로 시작했다. 통기타와 하모니카 등으로 ‘내마음의 보석상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히지네’, ‘향수’, ‘변해가네’ 등 한국 가요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화권의 대표적인 국민가요 ‘월랑대표 아적심’을 부르며 시작하자 중국 영사관 관계자 등이 중국어로 따라부러 양 국가 간 교류와 문화를 통한 소통이라는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밴드 공연에 이어 이현옥씨의 연주에 맞춰 입

영빈 성악가가 중국민요 ‘모리화’를 선창한 후 참석자들이 함께 불렀다.

한 참석자는 단 세 번째 합창 만에 중국어 특유의 발음과 성조를 살려 곡을 소화해내며 주변 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또 한송이의 나의 모란’ 등 한국 가곡을 부르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정지 주광주중국총영사는 “한국의 어버이

날을 맞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들께 축하의 말을 전하고,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게도 감사 드린다”며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은 앞으로도 한국 식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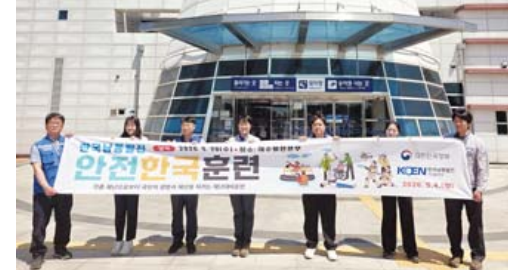
앞서 가든 음악회 시작 전 참석자들은 1998년 창설된 한국 지역문화연구회 주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양봉업자이자 이날 행사가 진행된 카페 더비를 비롯해 각종 기능을 융합한 ‘6차 산업’으로 구축된 ‘꽃

별정원’을 둘러봤다. 꽃별정원은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 관광지로의 기능 등을 인정받아 2024년 산림청 지정 ‘민간정원 2호’에 등록됐다.

문병채 한국 지역문화연구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행사에 중국 외교관부터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이 자리를 빛내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생태·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닌 꽃별정원과 같은 관광지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 지역문화연구회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국내·외 독특한 문화를 탐방·향유하고 예술인 초청 공연 및 지원 등 지역문화를 가꾸기 위해 결성했으며, 지난달 4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한중 우호 친선의 밤 행사는 그동안 문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중경제인친선협회의 주최로 이뤄졌으나, 한중 교류와 소통에 문화 체험을 더해 더욱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주최를 변경했다. /서형우기자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안전한국훈련’ 홍보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최근 본부 임직원들이 KTX 여천역 일대에서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연계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종합 훈련이다.

본부 임직원들은 시민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며 훈련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여수발전본부는 오는 20일 산불로 인한 발전 설비 화재·폭발 및 유해가스 누출이라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발전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실천과 같은 합동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교육 현장·지역사회 잇는 가교 역할 최선”

박재홍 목포학교운영협의회장 재선  
회원들 신임 바탕으로 임기 1년



아간다. 10일 목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목포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며 연임을 확정 지었다. 임기는 1년이다.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목포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홍(51·사진) 목포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회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목포 교육 발전을 위한 헌신을 이

이번 총회에는 목포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지난 1년간 일선 학교운영위원회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단단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평가를 받아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게 됐다.

현재 목포에서 동행광고기획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평소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쳐며 남다른 애정심을 보여왔다.

목포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제정된 ‘전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핵심 교육 자치 기구다.

관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지역 교육 현안과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은 물론, 각 학교 운영위의 활동 지원,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지역사회 교육 발전 기여 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박재홍 회장은 “다시 한번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지역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을 잇는 든든한 징검다리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포=정혜선 기자



담양 무정면 지사협, ‘행복 보따리’ 지원

담양군은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무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6명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62가구에 안전한 보행용 돕는 ‘네 발 지팡이’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정면 지사협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5가구에 생필품과 식료품이 풍성하게 담긴 ‘행복 보따리’도 전달했으며,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삼동중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어르신들께 전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정이 넘치는 무정면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미영 무정면장은 “항상 지역 복지 증진에 앞장서 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이웃도 없는 행복한 무정면을 가꾸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어버이 은혜 감사” 광주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광주시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우리가 걸어갈 오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효행 실천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유공자 18명(보건복지부 장관상 3명, 시장상 15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마음

을 담아 날리는 ‘감사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에는 야외광장에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자전거 무상 점검과 친환경 탈취제 나눔을 통한 ESG 실천 부스, 건강 체크·이혈요법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치매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부스 등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변은진 기자



### 전남도, 가정의 달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

전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도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는 도청 본청 1층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과 감사관, 감사관실 직원, 도 공무원노조가 함께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캠페인은 청렴 실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직원들

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직원들은 출근길에 ▲사익보다 공익 우선 ▲청탁·부당 요청은 단호히 거절 등 10종의 실천 다짐 문구가 적힌 열매 스티커를 청렴나무에 직접 달면서 생활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재정 기자

### 광주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어버이날 행사’ 호응

광주 서구 소재 서빛마루시니어센터(사회복지법인 우성나눔재단)는 지난 8일 지역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2026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카네이션 전달, 어버이날 특식 지원, 키캡키링 꽃화분 예코파우치 만들기, 네일아트 등 다양한 체험과 나눔 행사로 채워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센터 내 시니어레스토랑에서 제공된 특식이 인기를 끌었다. 이날 600여명의 어르신 식사 제공을 위해 영암마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해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원영 서빛마루시니어센터 관장은 “어버이



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성 기자

### 학봉장학회, 학생 385명에 1억6천여만원 전달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380여명에게 총 1억6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0일 학봉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순군 하니문화체육센터 직벽실에서 전남 지역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어 9일에는 서울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2차례의 수여식을 통해 총 385명에게 1억6천375만2천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누적 장학생은 3천672명, 장학금 총액은 15억4천688만원에 달한다.

학봉장학회는 1900년대 화순군 청풍면에서 일 본으로 건너가 배고픈 시절을 견디며 자수성가한 고(故) 이기학 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후배들은 뒤돌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6년 재단을 발족했다.



2012년 타계한 이 회장은 국내 재산 29억3천만 원을 장학회로 유증했으며, 부인 고(故) 조행자 여사와 고(故) 이문 여사, 현재 재단을 이끄는 아들 이연현 이사장 등 가족들이 사재를 보태 약 30억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일궜다.

이연현 이사장은 “장학금은 우리가 주는 선물이라기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실”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욱 기자



나주교육지원청 ‘영산강 도보 탐사’

나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초·중학교 환경 동아리 등 학생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을 걷고 역사를 만나는 영산강 도보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주교육 빅백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탐사는 생태 환경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하는 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의병 정신을 학습하고, 과거 의병의 격문인 ‘사발통문’에 이름을 적어보는 이색 체험활동을 했다.

이어 도보 탐사에 나선 학생들은 영산강 일대의 생물 다양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과거 극한 환경 속에서 의병들이 강 주변 식물을 어떻게 식량과 약초로 활용했는지 탐구하며 역사적 상상력을 한껏 키웠다.

변정민 교육장은 “영산강은 지역의 생태 자산이자 의병들이 나라를 지킨 역사의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고장의 생태와 역사를 연계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승환 기자